

투데이 칼럼

북한 김한솔의 행방

북한 김한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북 조카다. 현재 김한솔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버지 김정남 피살 이후 해외 망명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한솔의 소재가 다시 떠오른 것은 미국 주간지 뉴요커 보도였다.

이 주간지에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이 기고문을 냈다. 미국 정보기관 CIA가 김한솔을 데려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키 김은 김한솔을 구출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김한솔은 김정남 피살 이틀날 '자유조선'에 도피 요청을 했다. '자유조선'에서는 김한솔과 그의 가족 네덜란드 망명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후 김한솔 가족들과 함께 만난 곳은 타이베이 국제공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CIA 요원이 공항에 나타나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네덜란드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말대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북형 김정남의 피살 소식 때문이었다. 당시 김정남은 마카오로 떠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 순간 여성 2



정복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명에게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았다. 김정남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김정남 피살 20여 일 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한솔은 여권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의 신분까지 확인시켰다. 이후 김한솔은 종적을 감췄다. 당초 김한솔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다. 이 때 김한솔은 유럽 발칸 반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김한솔은 검은 란테 안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자유분방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듬해인 2012년 핀란드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저는 1995년 북한의 수도 평양에

서 태어났습니다. 마카오로 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다. 김한솔은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과 고립된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릴 때는 솔직히 신분을 숨겨야 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어린 시절 친구가 많지 않고 친구들 대부분이 마카오 같은 외국에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김한솔은 스스로를 이북 삼촌인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저는 삼촌(김정은)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삼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그분과 할아버지(김정일) 사이의 일이고, 저는 두 분을 만난 적도 없으니 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다.

그는 다음 해인 2013년 파리 정치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를 떠났

다. 그리고 아버지가 피살됐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

김한솔은 조국 북한으로 돌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한솔은 이제 20대 청년이다. 그는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이 왜 김한솔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안정,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비상사태에 적통 적자인 김한솔을 내세워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미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권력층이나 일반 주민들에게도 김한솔은 일단 적장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김한솔이 보여준 개방적인 모습도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한솔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요. 특히 조국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이 단계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한이 단결해 나아가려면 통일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인 지난 2일 호주 시드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처형 장소로 향하는 고행 재현 행사가 열려 한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며 십자가를 끌고 있다. 성금요일은 부활절 전의 금요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리는 날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스티커 붙은 파리 성당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생 피에르 성당 좌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 프랑스의 의회가 3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질 세 번째 전국 봉쇄령을 승인한 가운데 장 카스텍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야외에서 6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21세기 판데믹과 세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느 역사학자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주 미세한 세균이 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만 이는 곧 인류 모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After Disease)의 세계는 예수 이전(BC)의 세계와 이후(AD)의 세계만큼이나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생태계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면서 이를 방역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도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경제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비교적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글로벌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과거처럼 성숙시대가 될 수도 있다.

쇼핑문화는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대체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도 지급처럼 사람이 직접 배달하기보다는 드론이나 로봇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프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골라 무인 계산대를 지나면 신용카드로서 동시에 계산이 이뤄질 것이다.

게임산업은 더욱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재택근무는 더욱 일상화될 것이다. 원격진료와 원격수술도 보편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성이 향상돼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사회, 즉 실업자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인류가 '이 하찮은 바이러스'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일선 공무원 통일교육

일선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수록 통일교육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도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일선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뒤 3년이 지난 2018 9월부터 모든 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의 무작위로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라는 임의 규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강행 규정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통일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길러야 한다. 의무 교육 대

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과 직원이다.

통일교육은 통일 정책이나 북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통일을 대비하는 시민교육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1990년에 들어서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불신감의 해소 및 그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의 확보라는 방향으로 선화하게 됐다.

이제 통일을 위한 대비 교육도 업무에 두면서 통일 이후의 동질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마인드를 정립하고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